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 자기자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노 지 영[†]

광운대학교 / 대학원생

권 경 인

광운대학교 / 교수

본 연구에서는 개인상담 슈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수치심이 자기개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자기개념명확성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안에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저 373명을 대상으로 수퍼바이저의 수치심, 자기자비, 자기개념명확성, 자기개방 수준을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퍼바이저의 수치심은 자기자비 및 자기개방과 부적상관을, 자기개념명확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자비는 자기개방과 정적 상관을, 자기개념명확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개방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수퍼바이저의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매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자비를 매개로 수퍼바이저의 수치심이 자기개방으로 가는 경로가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수퍼바이저 수치심, 자기개방, 자기자비, 자기개념명확성

[†] 교신저자 : 노지영, 광운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 02-940-5743, E-mail : sfc00@hanmail.net

최근 사회의 다양한 장면에서 상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 상담자의 전문성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과정 중 하나가 슈퍼비전이다(김민정, 김수은, 2017). 슈퍼비전이란 숙련된 상담자가 슈퍼바이저로서 경험이 적은 상담자인 슈퍼바이저의 상담 수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상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 교육방법이다(Bernard, & Goodyear, 2008). 슈퍼비전은 교육과 평가의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은 상담자의 기술훈련과 유능감 발달을 촉진하고, 평가는 슈퍼바이저의 상담 전문성과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질을 감독한다(Haynes, Corey, & Moulton, 2006). 즉, 슈퍼비전을 통해 슈퍼바이저는 보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슈퍼비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의 자기 개방이다(Bernard, & Goodyear, 2008; Stoltenberg, 1981).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Self-disclosure)은 내담자-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삼자 관계에서 슈퍼바이저의 상담활동과 슈퍼비전에 관련된 사항들 즉, 슈퍼바이저 자신과 내담자, 상담과정, 그리고 슈퍼비전 과정 및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슈퍼바이저에게 의도적으로 알리는 것이다(손승희, 2005). 슈퍼바이저가 더욱 많은 것을 공유하고 개방할수록 슈퍼비전 과정이 촉진되고 슈퍼바이저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슈퍼비전의 만족도를 높인다(강순화, 주영아, 조하나, 2013; 강지연, 유성경, 2006; 박진희, 유미숙, 2011; 손승희, 2005). 반면,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낮으면 슈퍼바

이저가 적절하게 개입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슈퍼바이저의 실수로 발생 가능한 내담자의 안전과 보호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생길 뿐 아니라 슈퍼바이저가 상담기술을 향상시키고 유능한 상담자로 발달하는 것을 저해한다(Ladany, 2002; Watkins, Budge, & Callahan, 2015; Yourman, & Farber, 1996).

이렇듯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은 매우 중요하나, 슈퍼바이저들은 무엇을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을지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Yourman, & Farber, 1996; Ladany, Hill, Corbett, & Nutt, 1996). Yourman과 Farber(1996)는 연구에 참여한 슈퍼바이저의 약 40%가 자신의 임상적 실수를 슈퍼바이저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약 60%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슈퍼바이저에게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비개방하는 경우가 1회의 슈퍼비전에서 약 3번 정도 발생한다고 하였다(Mehr, Ladany, & Caskie, 2010). 국내 슈퍼바이저의 비개방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도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슈퍼바이저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 슈퍼비전 경험에 대해 개방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손승희,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슈퍼바이저들이 상담자로서의 실수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은폐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사전에 갈등을 피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상담자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고자 참여하는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차원의 변인들 중 슈퍼바이저의 심리적 특성은 실제 상담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강지연, 유성경, 2006). 그중 수치심은 자신(self)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 및 자기책망이 따르는 자의식(self-conscious) 정서이다(Eisenberg, 2000; Tracy & Robins, 2004). 자신이 중요한 외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인식할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Lewis, 2000). 슈퍼바이저의 수치심은 내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을 방해함으로써 상담자의 전문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강지연, 유성경, 2006; Bernard, & Goodyear, 2008; Hemlick, 1997; Treese, 1989; Yourman, 2000). 실제로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슈퍼바이저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이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개인 특성을 드러내며 수치심을 직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Pica, 1998). 슈퍼비전에서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자신이 했던 수행을 그대로 노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가 상담자로서 실패로 받아들여져 부적절감을 느끼게 되면 슈퍼바이저들은 더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Bernard, & Goodyear, 2008; Falender, & Shafranske, 2004). 그러나 슈퍼바이저들은 수치심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로서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 기준 및 목표를 깨닫고 내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Ferguson, & Stegge, 1995). 즉, 한 개인이 상담자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은 피할 수 없는 단계이자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렇기에 수치심을 경험하는 동안 자신(self)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을 도울 수 있고, 의식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수치심과 같은 방어적인 정서에 함몰되지 않고 대안적 반응을 하게 해주는 자기개념으로 자기자비를 제안할 수 있다(윤양은, 백미현, 2019). 자기자비(self-compassion)란, 건강한 형태의 자기수용으로서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자신의 부적절함을 인식했을 때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온화한 태도를 말한다(Neff, 2003a, 2003b). Gilbert(2009)는 자기자비가 다양한 정서조절 체계 중 진정, 만족-안전 시스템(the soothing, contentment and the safeness system)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정 체계가 꺼져 있어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이나 모멸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거나 위로하는 자기자비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고종숙, 2016; 김다민, 이혜란, 2020; 김소연, 2015; 유지혜, 2013; 윤양은, 백미현, 2019). 반면,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경험할 힘이 있다. 따라서 힘든 대상이나 경험으로 발생 가능한 수치심을 숨기지 않고 개방하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Germer, 2009; Neff, Kirkpatrick, & Rude, 2007). 일례로 Leary, Tate, Adams, Allwn와 Hancock (2007)은 그들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당신은 보통 수준입니다.”라는 중성적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수준이 좋거나 높지 않은 보통의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 덜 흥분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입사면접상황을 주고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기술하라’는 수행과제를 제시하며 자기 평가적 불안을 유도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자기자

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중대한 약점을 개방하는 데 저항이 적었으며 약점을 작성한 이후에도 유의하게 낮은 불안 수준을 보고하였다(Neff et al., 2007).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통해 수퍼바이저의 수치심이 자기개방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자기자비 수준이 수치심과 자기개방 사이에서 매개요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자기개념명확성을 설명할 수 있다(Fullwood, James, Chen-Wilson, 2016; Tajmirriyahi & Ickes, 2020). 자기개념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란, 자기와 관련된 개념들의 내적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Campbell, 1990). 즉, 하나의 조직화된 지식 체계로서의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인 자기개념(self-concept)에서 볼 때, 자기존중감(self-esteem)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같은 내용적인 측면에 관한 평가라면 자기개념명확화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된 인식과 확신, 그리고 신뢰를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Campbell et al., 1996; Stopa, 2009). 이러한 자기개념명확성은 자신에 대한 기억을 조직하고 자기 관련 정보처리를 조절하며 자기개념 구조와 외부 정보를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백수희, 2002).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 일관되고 통합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혼란스러워 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며 환경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조유경, 2012; Guerrettaz, Chang, Hippel, Carroll, & Arkin, 2014). 이와 반대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개념에 대한 모호하거나 상반되는 정

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외부의 정보나 평가에 민감하고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하다(윤소야, 2004; 정소라, 현명호, 2015; Van Dijk et al., 2014). 문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인관계에서 비개방적이며 비협조적인 특징 역시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Bechtoldt, De Dreu, Nijstad, & Zapf, 2010).

명확한 자기개념은 상담자들에게 필수적인 항목이다. 자기개념이 명확한 상담자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가 높으므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이 속한 상황에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조유경, 2012). 이러한 태도는 내담자의 돌발행동이나 심리적 전이가 발생하여 상담자를 향한 공격 또는 저항 행동이 일어날 때 상담자가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Smith, Wethington, & Zhan, 1996). 이뿐만 아니라, 자기개념명확성은 자신이 비판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돕기에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에게 자기의 상담 경험을 개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하지만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념명확성이 과도하게 높을 때는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가라는 기준에 얽매어 인식과 태도가 경직되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띌 수 있다(Campbell & Di paula, 2002). 오히려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이 자신의 실수나 결점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하고, 이는 타인도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알게 되면 자신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때문에 수퍼비전에서도 수

퍼바이지가 슈퍼바이저로부터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보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자기개방을 회피하게 만든다(김윤희, 서수균, 2008; 문경하, 2007; 조유경, 2012).

이를 종합해보면, 슈퍼바이지가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슈퍼바이저에게 자기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자기자비의 수준에 영향을 받을 때, 자기개념명확성도 자기개방에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슈퍼바이지의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를 자기개방이 매개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그림 1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바이지의 수치심은 자기개방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둘째, 자기자비는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개인상담 사례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개인 슈퍼비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슈퍼바이저들이다. 또한 한 명의 슈퍼바이지가 다수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에 개인 슈퍼비전을 실시해 준 한 명의 슈퍼바이저를 선택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지시문을 포함했다. 총 380명이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7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여자가 347명(9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30대 192명(51.5%), 40대 103명(27.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석사졸업이 291명(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박사과정 36명(9.7%), 석사과정 27명(7.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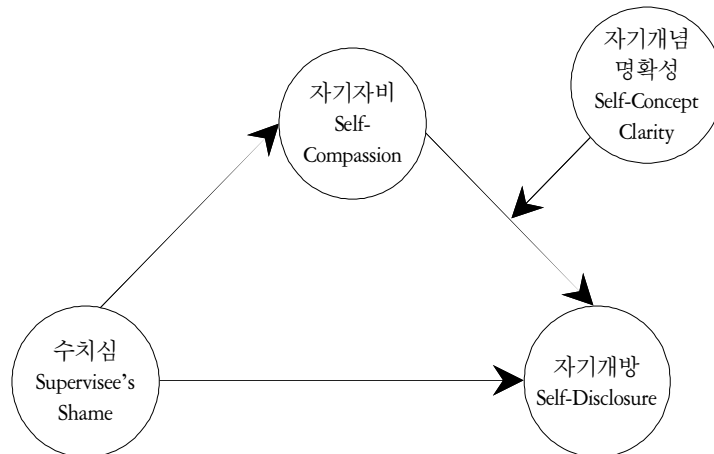


그림 1.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모형

측정 도구

수퍼바이지 수치심 척도

본 연구에서는 Hemilck(1997)이 개발한 수퍼바이지 수치심 척도(Shame in Supervision Instrument: SISI)를 서은경(201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26 문항으로 다음 4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상담자로서의 부족감(문항 예: 나는 내가 상담자로서 결함이 있다고 느꼈다), 둘째,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감(문항 예: 나는 때로 수퍼비전을 받은 후 어딘가로 도망가서 숨고 싶었다), 셋째, 버려짐/거절에 대한 두려움(문항 예: 수퍼바이저는 내가 실수했을 때, 나에게 대해 실망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퍼바이저에게 숨기기(문항 예: 나는 수퍼바이저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으려고, 상담 회기 동안 일어났던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전적으로 그렇다)'의 7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퍼바이저의 수치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은경(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4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 별로 각각 .88, .89, .89, .79이었다.

수퍼바이지 자기개방 척도

손승희(2004)가 개발한 '수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수준 질문지'를 사용하여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 수준을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비개방 수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를 더 부여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개방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

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척도를 자기개방 척도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는 '1점(전혀 개방하지 않는다)~5점(항상 개방한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자기개방 원척도는 수퍼바이저 및 수퍼비전에 대한 반응, 수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대한 의식, 상담진행 및 개입, 상담자-내담자 감정 및 개인적 이슈라는 다섯 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서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방 수준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 표본 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KMO 표본 적합도는 0.9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공통분산(communality)의 초기값으로서는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을 이용하였다. 요인 개수 결정은 스크리도표(scree plot)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2개의 하위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부하크기는 사교회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요인부하 크기(.40)를 갖지 못하는 2문항(문항 예: 상담자로서 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하는 마음,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접근이 나와 맞지 않는 경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43문항이 선택되었으며, 추출된 2개의 요인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반응(문항 예: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이 비난으로 느껴질 때 드는 부정적 감정, 내가 원하는 슈퍼비전 방식 등) 20문항과 상담관계에 대한 반응(문항 예: 내담자를 좀 더 깊게 탐색하지 못한 경우, 내담자 반응에 적절하게 초점을 못 맞춘 경우 등)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92, .90이었다.

자기자비척도(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Neff(2003b)의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ale: SCS)를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K-SCS(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이며, 3가지 긍정적인 개념의 자기자비와 3가지 부정적인 개념의 자기자비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하위개념은 자기친절(문항 예: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쓴다), 보편적 인간성(문항 예: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마음챙김(문항 예: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이다. 부정적 하위개념은 자기 판단(문항 예: 나는 정말 힘들 때, 자신을 더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고립(문항 예: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과잉 동일시(문항 예: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이다. 응답 방식은 '1점(거의 아니다)~5점(거의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를 활용하며, 부정적 하위요인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한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자기친절 .79, 보편적 인간성 .75, 마음챙김 .72, 자기 판단 .83, 고립 .82, 과잉동일시 .75이었다.

자기개념명확성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한 자기개념명확성(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 Campbell et al.,(1996)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20 문항에서 12문항으로 단축한 후 활용하였다(Campbell et al., 1996).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진행되며, 12문항 중 10문항(문항 예: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변한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Campbell 등의 연구(1996)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고, 김대익(1998)의 연구에서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먼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제안에 따라 수치심→자기자비→개방으로 이어지는 단순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은 Efron(1979)에 의해 개발된 비모수적인 재표집(resampling) 기법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매개효과 추정치가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Sobel(1982)의 잘못된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최신의 매개효과 검정 방법이

며(Hayes, 2009),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핑 표집분포를 형성하기 위해 총 5,000번의 부트스트랩핑 재표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회귀분석 기반의 분석 도구인 PROCESS Macro(Hayes, 2017)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여 단순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Model 14를 이용하여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 분석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표 1 참고). 조절

된 매개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왜도를 확인한 결과 -0.038~0.210이었고, 첨도를 확인한 결과 -0.611~0.560이었다. 이는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Curran, West와 Finch(1996)의 정규성 조건을 만족하는 수치다.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표 2 참고)를 살펴보면, 수치심이 자기개념명확성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r=0.479, p<.001$), 자기자비($r=-0.487, p<.001$) 및 자기개방($r=-0.271, p<.001$)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자기자비는 자기개념명확성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r=-0.551, p<.001$)이 존재하였고, 자기개방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0.292, p<.001$)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개방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0.117, p<.05$).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수치심	80.7	24.7	28	151	0.210	-0.458
자기자비	87.4	14.6	47	122	0.123	-0.611
자기개념명확성	30.2	6.7	12	47	-0.038	-0.413
자기개방	136.3	18.9	78	196	0.211	0.560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계수

변수	1	2	3	4
1. 수치심	1.000			
2. 자기자비	-0.487***	1.000		
3. 자기개념명확성	0.479***	-0.551***	1.000	
4. 자기개방	-0.271***	0.292***	-0.117*	1.000

주. * $p<.05$; *** $p<.001$.

매개효과 검증

수치심과 자기개방 사이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였고, 자기자비와 자기개방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수치심은 자기자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B=-0.287, t=-10.740, p<.001$)을 주었다. 두 번째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기자비를 통제된 상태에서 수치심은 자기개방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0.129, t=-2.999, p<.01$)을 주었으며, 수치심을 통제된 상태에서 자기자비는 자기개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0.273, t=3.739, p<.001$)을 주었다.

수치심에서 자기자비를 매개하여 자기개방에 주는 간접효과 결과는 표 4와 같다. 수치심에서 자기자비를 통하여 자기개방에 주는 매개효과는 -0.078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슈퍼바이저의 수치심이 낮을수록 자기자비가 증가하고, 이는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다음으로 수치심과 자기개방 사이에서 발생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인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의 Model 14를 이용하였다. 표 5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로서의 자기자비와 자기개방에 대한 두 개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수치심은 자기자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B=-0.287, t=-10.740, p<.001$)을 주었다. 두 번째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자기개방에 대한 것으로서 상호작용효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자비와 자기개념명확성을 통제된 상태에서의 수치심은

표 3.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기자비		
	B	SE	t
수치심	-0.287	0.027	-10.740***
	종속변수: 자기개방		
	B	SE	t
수치심	-0.129	0.043	-2.999**
자기자비	0.273	0.073	3.739***

주. ** $p<.01$; *** $p<.001$.

표 4. 간접효과 검증 결과

매개효과	B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수치심 → 자기자비 → 개방	-0.078	-0.129	-0.031

자기개방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0.163$, $t=-3.657$, $p<.001$.)을 주었다. 자기자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B=-0.027$, $t=-2.680$, $p<.01$.)하여 자기자비가 자기개방에 주는 효과가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iken과 West(1991)의 전통을 따라 자기개념명확성의 세 수준(1표준편차 아래, 평균, 1표준편차 위)에서 자기자비와 자기개방의 단순

회귀선을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자기개념명확성의 세 수준에서 자기자비가 자기개방에 주는 효과는 모두 정의 관계였다. 단,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자비가 자기개방에 주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B=0.107$, $p=.363$.), 자기개념명확성이 중간인 경우($B=0.286$, $p<.001$.)와 낮은 경우($B=0.467$, $p<.001$.)에는 그 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정을 위해

표 5. 조절된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기자비		
	B	SE	t
수치심	-0.287	0.027	-10.740***
	종속변수: 자기개방		
	B	SE	t
수치심	-0.163	0.045	-3.657***
자기자비	1.103	0.296	3.726***
자기개념명확성	2.691	0.890	3.023**
자기자비×자기개념명확성	-0.027	0.010	-2.680**

주.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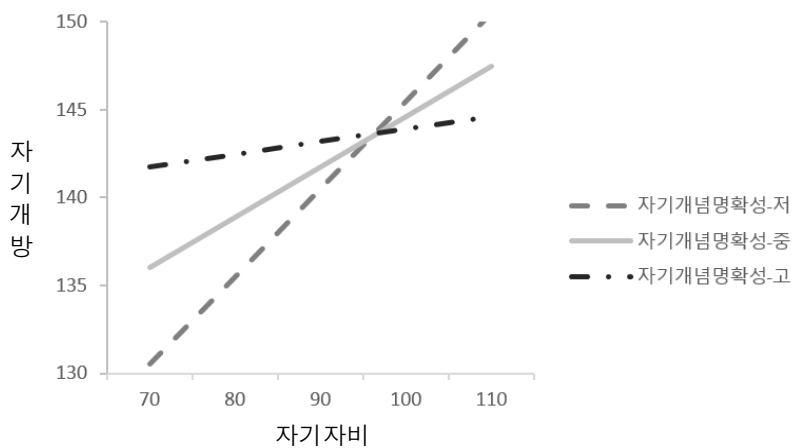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자비와 자기개방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제공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확인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의 추정치는 0.008이었으며, 95% 부트스트랩핑 신뢰구간 추정치는 [0.001, 0.016]로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수치심→자기자비→자기개방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에 따라 매개효과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개념명확성의 세 수준(1표준편차 아래, 평균, 1표준편차 위)에서 매개효과의 추정치와 유의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위의 결과를 보면, 자기개념명확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경우에 매개효과의 추정치는 -0.134였으며, 매개효과의 95% 부트스트랩핑 신뢰구간 추정치는 [-0.221, -0.064]로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개념명확성이 평균 수준인 경우에는 매개효과의 추정치가 -0.082였으며, 매개효과의 95% 부트스트랩핑 신뢰구간 추정치는 [-0.137, -0.030]으로서 역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경우에 매개효과의 추정치는 -0.031이었으며, 매개효과의 95% 부트스트랩핑 신뢰구간 추정치는 [-0.102, 0.042]로서 0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상담 수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수퍼바이저의 수치심이 자기개방으로 향하는 과정에 미치는 자기자비와 자기개념명확성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수퍼바이저의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개념명확성이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퍼바이저의 수치심은 자기자비 및 자기개방과 부적, 자기개념명확성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자기자비는 자기개방과 정적, 자기개념명확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개념명확성은 자기개방과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수퍼바이저의 자기개념명확성과 다른 주요 변인과의 상관관계이다. 자기개념명확성과 수치심의 정적 상관관은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개인은 경직되고 정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표 6. 수치심→자기자비→개방의 매개효과에서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i>B</i>	부트스트랩핑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기개념명확성	저(<i>M</i> -1 <i>SD</i>)	-0.134	-0.221	-0.064
	중(<i>M</i>)	-0.082	-0.137	-0.030
	고(<i>M</i> +1 <i>SD</i>)	-0.031	-0.102	0.042

보다 완벽주의적이라고 설명한 Campbell과 Di paula(2002)의 연구를 지지하며, 수퍼바이지의 수치심이 수퍼바이지의 완벽주의와 강한 정적 상관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서은경, 유성경, 2012; 윤계현,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보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방어적인 특성을 보였으며(Csank, & Conway, 2004), 긍정적인 피드백을 선호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거부(문경하, 2007)하였다. 또한, 조유경 (2012)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개념명확성의 수준이 역전이 자각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높은 자기개념명확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회피함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보편적인 경험으로 이해하는 자기자비와 반대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수퍼바이지의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수퍼바이지의 수치심이 그들의 자기개방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수퍼바이지의 높은 수치심이 자기자비 수준을 낮추어 자기 비개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치심의 자기개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수치심이 높을수록 비개방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Yourman, 2000; 강지연, 유성경, 2006)와 일치한다. 이어서 매개모형에서 나타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관련성은 높은 수치심이 자기자비를 방해하고(Gilbett, 2014; Gilbett & Protector, 2006; 이다예, 2019; 고종숙, 2016; 홍영근, 2018), 자기자비가 자기 은혜를 통한 비개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문은주, 최해연, 2015; 전슬기, 2020)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치심으로 인해 자기개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자비적 태도를 증진하는 개입을 통해 자기개방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는 전문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평가받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치스러운 감정을 직면하게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상담자로서의 기준과 실제 자신의 모습의 차이만큼 수치심을 경험하면서 수퍼바이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치심의 고통이 적절한 수준으로 경험된다면 수퍼바이지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역량과 자기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차하나, 2018). 또한, 수퍼바이지의 자기 교정적 노력과 함께 수치심은 조절되고 성취감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성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자비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자비는 부정적인 것을 없애거나 회피하는 대신, 부드럽게 위로하고 허용함으로써 어려운 경험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자원을 주어 적응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Germer, 2009). 나아가 실패로부터 더 잘 배우고 학습하게 돕는다(고은정, 2014).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퍼바이지의 자기자비 수준을 높인다면 이들이 상담자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수퍼비전에서 자신을 더욱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퍼바이지의 수치심과 자기개방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자기개념명확성에 의해 조절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개념명확성의 모든 수준에서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자기개방이 높아졌다. 다만,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명확성은 낮은 수준의 자기자비에서도 자기개방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는데 자기자비와 자기개방 간의 기울기가 낮아 자기자비가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슈퍼바이저가 수치심을 경험할 때 자기자비가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기개방을 할 수 있으나 자기자비가 높아지더라도 자기개방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반면, 자기개념명확성이 낮은 슈퍼바이저는 자기자비가 낮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개방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자기자비가 높아지면 자기개방 수준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 피드백에 내재된 부정적인 정보에 덜 몰입되어 냉철하고 건설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Dreu & Van Knippenberg, 2005; Stucke & Sporer, 2002). 즉, 안정되고 확고하게 자기개념이 구축되어 있는 슈퍼바이저는 자기자비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개방이라는 적응적 대처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자기개념명확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안정적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Campbell & Di paula, 2002; 문경하, 2007).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자비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키우는 작업, 즉 자기개념명확성을 높이는 개입도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상담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인 슈퍼비전에서 자기개방이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슈퍼비전은 대체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상하 관계의 맥락에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관계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힘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는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슈퍼바이저가 가장 개방하기 어려워하는 슈퍼바이저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자신과 슈퍼바이저 모두 지성을 가진 성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지니고 적대감 없이 의견의 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부정적 피드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McWilliams, 2007). 이는 슈퍼바이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수치심과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슈퍼비전 초기에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의 중요성과 자기자비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서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슈퍼비전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슈퍼바이저가 경험함으로써 슈퍼비전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슈퍼바이저의 발달단계를 나누지 않고 조사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유의하여 적용해야 한다. 슈퍼바이저가 초보 상담자일수록 상담과정에서의 모호함에 대한 불안이 높고,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Stoltenberg, 1981). 이로 인해 나타나는 초보 상담가의 슈퍼바이저로서의 수치심과 높은 경력의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 경험하는 수치심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슈퍼바이저의 발달 수준에 따라 슈퍼비전 상황에서 경험되는 특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슈퍼비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특성만 살펴봐왔으나 향후에는 슈퍼비전 과정 변인과 슈퍼바이저의 특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슈퍼비전 현상을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기반의 경로모형인 PROCE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모형분석을 좀 더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변인 간 영향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순화, 주영아, 조하나 (2013).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자기개방과 작업동맹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31-651.
- 강지연, 유성경 (2006). 슈퍼바이저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 연구* 7(4), 1005-1021.
- 고은정 (2014). 자기자비와 자존감이 부정적 생활사건 경험시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종숙 (2016).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 김다민, 이해란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관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1669-1694.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에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김수은 (2017).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슈퍼바이저의 윤리 행동 수준이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07-627.
- 김소연 (2015).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 581-613.
- 문경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주, 최해연 (2015). 정서처리과정에서 자기자비의 역할: 정서인식명료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16.
- 박진희, 유미숙 (2011). 슈퍼바이저의 성인애착이 놀이치료 슈퍼비전 과정에서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작업동맹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129-142.
- 백수희 (2002). 자기존중감, 자기명확성과 타인

- 의 평가에 따른 정서적 반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경 (2011). 슈퍼바이저의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은경, 유성경 (2012). 슈퍼바이저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 (1), 1-26.
- 손승희 (2004). 개인 슈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승희 (2005). 슈퍼비전에서 상담수련생의 비개방 내용, 이유 및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57-74.
- 유지혜 (2013). 수치심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전략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야 (2004). 문화성향과 일관성 추구 경향, 자기개념 명료성 및 성격 특성 지각.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양은, 백미현 (2019).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 (10), 1-20.
- 윤제현 (2015). 슈퍼바이저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 슈퍼바이저 과업지향적 스타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예 (2019).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슬기 (2020).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은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라, 현명호 (2015). SNS 이용자의 상향비교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열등감의 매개효과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703-717.
- 조유경 (2012). 초심상담자의 사적자의식, 자기개념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역전이 활용과의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하나 (2018). 수치심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학상담적 연구: 유교사상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근 (201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공포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195-21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echtoldt, M. N., De Dreu, C. K., Nijstad, B. A., & Zapf, D. (2010). Self concept clarity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78(2), 539-574.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8). 상담 슈퍼비전의 기초 (유영권, 방기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D.,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Gordon,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81-1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sank, P. A. R., & Conway, M. (2004). Engaging in self-reflection changes self-concept clarity: on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and low-and high-clarity individuals. *Sex Roles*, 50(7), 469-48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 Dreu, C. K., & van Knippenberg, D. (2005). The possessive self as a barrier to conflict resolution: effects of mere ownership, process accountability, and self-concept clarity on competitive cogni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45.
- Efron, B. (1979). Bootstrap methods: another look at the jackknife. *The Annals of Statistics*, 7(1), 1-26.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Falender, C. A., & Shafranske, E. P. (2004). *Clinical supervision: a competency-based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rguson, T. J., & Stegge, H. (1995). Emotional states and traits in children: the case of guilt and shame. In J. P. Tangney, & K.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pp. 174-197). New York: Guilford Press.
- Fullwood, C., James, B. M., & Chen-Wilson, C. H. (2016). Self-concept clarity and online self-presentation i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9(12), 716-720.
- Germer, C. K. (2009). *The mindful path to self-compassion freeing yourself from destructive thoughts and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Gilbert, P. (2009). Introducing compassion-focused therapy.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5, 199-208.
- Gilbert, P. (2014). 자비중심치료 (조현주, 박성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 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3(6), 353-379.
- Guerrettaz, J., Chang, L., von Hippel, W., Carroll, P. J., & Arkin, R. M. (2014). Self-Concept Clarity: buffering the impact of self-evaluative informatio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 12(4), 180-190.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aynes, R, Corey, G., & Moulton, P. (2006) 상담 및 조력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김창대, 유성경, 김형수, 최한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2년에 출판).
- Hemlick, L. M. (1997). *The role of shame in clinical supervision: development of the shame in supervis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USA.
- Ladany, N. (2002). Psychotherapy supervision: how dressed is the emperor. *Psychotherapy Bulletin*, 37(4). 14-18.
- Ladany, N., Hill, C. E., Corbett, M. M., & Nutt, E. A. (1996). Nature, extent, and importance of what psychotherapy trainees do not disclose to their supervis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10-24.
- Leary, M. R., Tate, E. B., Adams, C. E., Allwn, A. B., & Hancock, J. (2007). Self-compassion and reactions to unpleasant self-relevant events: the implications of treating oneself kind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87-904.
- Lewis, M. (2000).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guilt.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pp. 623-636). New York: Guilford Press.
- McWilliams, N. (2007) 정신분석적심리치료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 practioner's guide}. (권석만의 2인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Mehr, K. E., Ladany, N., & Caskie, G. I. (2010). Trainee nondisclosure in supervision: what are they not telling you?"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0(2) 103-113.
- Neff, K. D. (2003a).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1.
- Neff, K. D. (2003b).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Neff, K. D., Kirkpatrick, K. L., & Rude, S. S. (2007). Self-compassion and adap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1),139-154.
- Pica, M. (1998). The ambiguous nature of clinical training and it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tudent clinician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5(3), 361-365.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i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 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mith, M., Wethington, E., & Zhan, G. (1996). Self concept clarity and preferred coping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64(2), 407-434.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1982 (pp. 290-312).

-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toltenberg, C. (1981). Approaching supervision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1), 59-65.
- Stopa, L. (2009). Reconceptualizing the self.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6(2), 142-148.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 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Tajmiriyahi, M., & Ickes, W. (2020). Self-concept clarity as a predictor of self-disclosur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7(6), 1873-1891.
- Tracy, J. L., & Robins, R. W. (2004). Putting the self into self-conscious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5(2), 103-125.
- Treese, G. G. (1989). *The phenomenon of shame in supervision and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identity in psychologists*. Doctoral Dissertation. The Fielding Institute, California, USA
- VanDijk, M. P., Branje, S., Keijsers, L., Hawk, S. T., Hale, W. W., & Meeus, W. (2014). Self-concept clarity across adolescence: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op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1), 1861-1876.
- Watkins Jr, C. E., Budge, S. L., & Callahan, J. L. (2015). Common and specific factors converging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a supervisory extrapolation of the Wampold/Budge psychotherapy relationship model.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5(3), 214-235.
- Yourman, D. B. (2000). *Internalized shame, representations of the supervisory process, and trainee perceptions of non-disclosure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
- Yourman, D. B., & Farber, B. A. (1996). Nondisclosure and distor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3(4), 567-575.

원고접수일 : 2021. 04.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6. 08

게재결정일 : 2021. 08. 09

The Effect of Supervisee's Shame on Self-Disclosure in The Individual Counseling Supervision: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and Self-Concept Clarity

Noh, Ji-Young

Kwangwoon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Kwon, Kyoung-In

Kwangwoon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Compassion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ee's shame and self-disclosure, and whether such mediating effect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level of Self-Concept Clarity. A total of 373 supervisees who had recently engaged in individual counseling supervision (within the past year), completed a questionnaire probing Shame In Supervision Instrument (SISI), Korean Counselor Nondisclosure Scale (K-CNS), 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 and Self-Concept Clarity scal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upervisee's shame, Self-compassion, Self-Concept Clarity, and self-disclosur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Self-compa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ee's shame and self-disclosure. Third,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upervisee's shame on self-disclosure via Self-compas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upervisee's shame, self-disclosure, Self-compassion, Self-Concept Clarity